**1.자기 소개**

* **서원:** 상임활동가. 명목 대표 겸. 정민을 도와서 실무를 본다. 해방촌에 2013년. 빈집에 살다가 해방촌 인근에서 살고 있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빈고폰을 맡고 있다.
* **드론:** 빈집에서 왔다. 빈집 공동체 활동가. 빈집 활동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는 게 없어서 여기서 알아가야겠다. 드론은 날아다니는 드론? 스타크래프트의 드론!
* **오디:** 6개월간 여행을 다녀와서 빈집에서 살게 된다.
* **센:** 빈고에 한 달 전에 가입하였다. 처음 왔다.
* **케이:** 비혼 여성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센과 작년 추석부터 함께하고 있다. 처음엔 네 명이었는데 여러 어려움으로 둘이 역촌동에 있는 쓰리룸에서 살고 있다. 어떻게 공동 주거로 확장할 지가 고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다.
* **보선:**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에서 왔다. 공동체 활동가는 처음. 유일하게 주거 공동체가 아닌 것 같다.
* **병택:** 모두들에서 벌써 2년이 되었다. 공동체 활동가로 있지만 빈고를 잘 모르고 알고 싶다. 1박 2일 같이 잘 해봤으면.
* **나마스떼:** 빈집에 살고 있다. 해방촌 사람들의 활동가로 왔는데, 빈집 사람들의 워킹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프로젝트성 일. 해방촌 이야기라는 공간을 나눠 쓰고 있다.
* **소연:** 모두들에서 활동한 지 한 달. 주거 형태나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예전부터 모두들에 들어올까 고민만 하고 있다가 병택의 제안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 **현석:** 모두들에서 살고 있진 않은데 활동가로 활동 중. 두 달 조금 넘었다. 모두들 말고 여러가지 활동 하고 있다. 주된 걸로는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나눠먹는 것. 개인적인 관심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 **살구:** 올해 빈고의 감사. 운영회의 같은 거 할 때 함 가봐야지 하다 말았었는데. 활동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있긴 하다. 뜨문뜨문 보고 있어서 파악이 안 되는 게 많긴 하다. 내년 총회 전에 한 번은 봐야겠다, 해서 오늘 왔다. 잘 스캔하고 가겠습니다.
* **지음:** 빈고에서 운영활동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 관심 있어서 왔다.
* **땡땡:** 모두들에서 살고 활동하는 땡땡. 집이 너무 비싸서 어려웠는데 빈고라는 은행이 없었으면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 시작부터 긴밀했고 계속 배워가는 중인 것 같다.
* **웅기:** 도시가 싫은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홍성에 집을 마련하였고, 빈집에서 1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딱 1년 채우고 빈집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너무 좋고. 이사 준비로 다음주 한 주 바쁠 예정.

**1.공동체 워크샵**

* 1-1.공룡
*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으로 시작. 그 이외에도 공동작업들. 작업팀, 교육팀 구분되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공간이 카페. 1층에 카페를 만들게 되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보다는 생활공간 외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쉬고. 그런 공간으로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실만 있으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함께 놀기 위한 공간. 사무국과 교육팀과, 작업팀, 카페의 구성으로 공룡은 만들어져있어. 본인은 작업팀. 작업팀은 첫해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임대를 해서 하고 있어. 2년 3년 썼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두 밭이 있다. 검은색이 현재하고 있는 일들. 그에 대한 이상적인 형태가 빨간색. 논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데. 논이 있었으면 좋겠다. 먹는 밥 정도는 농사를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구요.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농업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고. 농사만 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농사를 하나 라는 고민이 있다. 농업 관련된 활동과 이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빨간 글씨로 써놓았다. 활동비도 나와야 하는데, 외부 강의를 하면서 거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작업팀 제일 큰 흠이라고 한다면, 작업장이 없는 것. 돈이 필요한데. 그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련하면 제일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 돈이 좀 모이면 빈고에 이용신청해서라도 얻어볼 생각. 작업장을 얻으면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미정이긴 한데. 양조, 햄, 쨈, 등 가공. 그 중 하나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몇년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원대한 꿈. 회색은 이상이 현실이 된다면 없어졌으면 하는 것. 알바와 미디어 교육, 외부 강의들이 저희를 먹여살리는데 자체 프로그램이 그걸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 교육팀은 신설되고 폐지되고, 언니들의 글쓰기라고 1-20대 여성들이 글을 읽고 쓰는 책모임. 지금은 1달에 1번 만나고 있어. 오재환 선생님이 최근에 노래 교실을 시작. 자체 프로그램이긴 한데 유스보이스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교육팀도 거의 재정적인 부분은 영상알바 외부교육을 통해 충원. 시급하게 사회적기업을 준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인증 받아서 공모를 거의 진행중에 있고. 내년중에는 판가름 날 예정.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을 3년 정도 벌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팀은 마을학교, 마을 공부방 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 카페는 공간중에 제일 넓은 공간. 음료를 팔고. 커피를 로스팅 해서 원두도 팔고,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고. 청을 만들어서 레모네이드 등. 수익이 나긴 어렵고 용돈벌이 수준. 간혹 가다 행사가 잡히거나. 대관을 하면 대관비를 받지 않고 음료나 안주를 팔고,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돈으로 운영한다. 출장뷔페를 가끔 나가서 요리하게 되는 것. 카페는 밥먹고 손님맞이. 그걸 벗어나긴 어려워. 그렇게 갈텐데. 수익구조만. 카페 활동가 인건비 공과금만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해. 잘 안 되고 있지만.
* 사무국은 cms 후원회원들 회원 신청하거나 소식을 보내거나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세미나 워크샵을 주최하는 역할. 각 팀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공룡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을 맡아서 하는 편. cms가 확충되면, 지금 cms로는 1명 활동가 활동비와 공간 운영비 정도. 그 이상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 그걸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 정기회의는 월 1회. 그달 정산이라도 놓고 월급이라도 이야기 하는 자리. 급하게 회의 해야 할 때는 그때마다 따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 상하반기 워크샵 진행. 각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놓치는 건 없는지. 처음의 마음들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가는것 같다. 일상적인 소통은 페이스북 비밀그룹. 바로 올리고 읽은 사람 표시도 되니까 그렇게 소통 하고 있다. 구글 캘린더 이용하고. 전체가 모여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다른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파업기금연대를 보면 현장에 찾아가서 집회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눈다. 지구분담금을 공동체 안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빈고가 빈고이름으로 신청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달에 한번 이라도 물품을 전달하거나 퍼포먼스나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 공룡이 7년 째 접어들었는데, 한번 환기를 하고 가야하는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시점이 되었고. 초반의 텍스트를 찾아서 다시 읽자는 이야기를 한다.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마을 학교, 작업장을 꾸려서 직접 해보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못했던 것들. 요즘 탄력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 시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작업팀, 교육팀 사회적기업이나 공모사업에 기대서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공룡의 현재는 그렇다고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 참여하는 인원 수가 어떻게 되는가?
* 상근이 6명, 비상근이 1명.
* 조직이 큰데 어떻게 운영 하나?
* 알바를 많이 한다. 지역에 미디어, 영상을 찍는 일 미디어 교육은 거의 독점해서 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 단체 행사 영상. 먹고 놀고를 안에서 같이 하니 식비 거의 안 쓰고. 해먹으니까. 노는 것도 놀 시간도 없지만 같이 해서 가거나. 그게 전부라. 적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
* 팀 별로 재정을 두나.
* 그렇게 한다. 재정 담당자 한명에게만 집중되니 각자 재정상황을 알고 풀어나갈 수 있게.
* 공룡은 관계가 좋은데 ...
* 10년 이상 본 사람들. 매일 붙어있다시피 한 사람들. 술마시며 이야기 하는 시간들.
* 공룡은 6명의 구성원들이 오래되었는데, 새로운 구성원은 어떻게 들어오나.
* 5명이 오래되었고 2명은 1명은 공룡이 오픈식을 하면서 잠깐 놀러왔다가 두달 사무실에서 놀다가 활동도 하다가 눌러앉게 된. 작년에 들어온 청소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친구. 공룡을 센터장이 안내해주어서. 한달정도 카페에서 같이 일해보자. 일하고 한달지났을 때 계속 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 해서 7명이 되었다.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나게 된 인연.
* 1-2.빈집
* 제가 전체를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구름집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 집에 있었던 일 중에 구성원 중 하나가 예전부터 다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부터 분담금을 밀리는 일이 있었다. 계약서를 쓰고 들어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고 도망갔을 때 그 피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적어봤다.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주욱 있어왔던지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피로도를 가 높으면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은 매주마다 집에서 집 회의를 하고 한달에 한번 마을 회의 마을 잔치 들을 통해서 반 강제적으로 서로의 소식을 확인. 구름집 같은 경우 페이스북 있지만 쓰진 않아. 보통은 텔레그램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는 편. 홈페이지는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지만 공유하고 있고. 외부인의 경우 이 쪽을 통해 소식을 알 수 있는 편. 해방촌이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계속 오를 전망이고. 계약이 연장되어 당장은 괜찮지만 1,2년 안에 다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해야 하나 그런 걱정이 있다. 이전에는 빈집의 규모가 컸었던 지라. 한 집이 계약 연장 못할 경우 분산수용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집을 새로 만들어서 수용할 것을 만들거나 그런 제스쳐를 취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고, 집값도 비싸고. 결정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 (곰자) 분담금 미납은 이번 건 이외에도 종종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 되었나?
* 그런 사람 일거다라고 못 받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몇 달까지의 제한을 두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최저선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 이번은 두달정도 밀리면 제재를 두는 것으로. 그랬더니 두달 밀리고 갔다. 능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 (정민) 이런 경우도 있지만, 6개월이 밀렸어도. 신뢰를 통해 기다려주고 취직도 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
* (웅기) 6개월이 불안했던 것은 사실
* (나마) 다른 집에서도 선물을 하는 듯이. 그 집으로만 재정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 (정민) 빈마을 상호부조 기금이 있어서.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기금.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 1-4.모두들
* 모두들 소개를 하면
* 모두들 소개: 12년 부터 시작. 13년에 첫 집 마련. 이 동네에 다섯 채의 집이 있고 17명이 같이 살고 있다. 요즘 모두들을 정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모두들이 어떤 곳일까를 생각했을 때, 자립하는 것을 서로 도와서 하는 곳. 자립할 때 집이 필요하니 같이 만든 것 같고, 혼자 살기 보다는 같이 살면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대부분 월셋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하철, 캠퍼스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 형태로 월세 구조로 지속하긴 힘들 것 같아 이 기회에 전셋집을 만들었던 것. 이런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지역 내 기금을 만들자는 이상을 가졌으나, 지역 내에서는 공감이 많이 안 됐었던 듯. 이 집을 만드는 데 많이 어려웠다. 1억 5천이 이 집인데, 이상적으로는 기금이 1억 5천을 넘어가면 어떡하나도 생각했었는데 잘 안 됐고. 새집 만들기에 대한 경험을 오늘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 그 기금 이름이 두더지 둥지 기금. 같이 해보려 했었지만 1억 5천 중 1천만원을 모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 공급자 조합원과 서울의 주택 사업에서 기금을 빌려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1억 5천을 모아서 결국 계약했는데 원래 전세 혹은 매매로 운영구조를 바꿔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집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는 어떻게 모두들을 운영할지 계획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두들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봐야지 않을까 하는 고민. 재정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공룡도 전환점을 맞듯이.
* 재정적인 부분은 모두들 구조 자체가 수익이 크지는 않다. 월 운영비 수익이 150만원을 얻고 있고, 이 상태에서 확장을 해야하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사업을 해야하나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결국 모두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다음 총회까지 해야하지 않나.
* 운영적인 부분. 공동체 구성원이 어떻게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모두들이 운영된 건 활동가들의 집단으로서만 규정되고 조합원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가 애매. 이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잘 안 됐고.
* 기존 병택과 땡땡이 주로 활동을 했는데, 새로 활동가 둘이 들어와서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될 것 같다.
* 최근 사업.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 부천에 오피스텔 163호가 들어서는데. 그것의 운영을 모두들에 위탁하는 것. 결과를 기다리는 중. 그 사업이 선정된다면 모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동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LH 사회주택은 어떻게 신청하였나?
* LH가 매입한 건물을 시중 가격의 30% 가격으로 임대받고, 그럼 시중 가격의 50%로 제공하며 나머지 차액을 받는 것.
* 좀더 커뮤니티를 추구하는 사회적 주택.
* 고민이 많았다. 우리가 같이 집을 산다는 게 서로의 집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살 지도 생각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건데. 그게 두더지 하우스. 사회적 주택은 보고 너무 집이 좋아서 놀랐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각자의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의 집이라, 고민이 많이 되었다.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게 한계가 커서,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다른 일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 안 돼도 좋다는 생각.
* 실무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룡이 팀을 나누는 것처럼 모두들도 팀을 나눠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
* 사회적 주택의 공유공간은?
* 없다. 풀옵션 원룸.
* 그래서 송내동 마을공동체하는 팀과 연결을 해서, 그 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 중. 50호 + 50호. 모두들은 주택 관리와 입주자 교육. 송내동 사랑방은 입주자들의 공동체 만들고 지역과 연결.
* 그 정도 규모인데 공유공간이 없으면 좀 힘들어 보인다.
* 100명을 모아다 뭘 해야할 거 아닌가 해서.
* 어쨌거나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입주 자격을 우리가 고를 수 있어서 같이 해나갈 사람들을 새로 뽑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
* 모두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활동가는 저, 활동가들이 떠난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꿈을 꿨으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질문에서 시작한 활동이니만큼 집세를 높일 수도 없어서 인건비가 나오기 힘든 구조. 그래서 활동과 연계해 기금 사업도 종종 받았는데 피로가 컸다. 기금 사업 없이 하면 더 어려워졌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인데.
* 공룡은 왜 사회적 기업은 안 하고 있나요?
* 할 거에요ㅋㅋ 사회적 기업을 하는 피로도 보다 알바를 하는 피로도가 더 높은 것 같다.
* 1-5.해방촌 사람들
* l 해방촌 사람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빈집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해방촌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 같다. 2013년 주민들과의 밥상모임 지역사업/마을 장터 기획을 했고. 2014년 마을 장터와 해방화폐 활동을 했고. 마을 사업을 주로 받아서 했다. 이런 지역성을 가지는 활동과 빈집을 크게 빈마을이라 봤을 때 빈마을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도 방점이 있었다. 그러다 2016년. 해마다 해방촌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라는 규정이 없이 모호한 채로 왔는데, 그러다보니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성격이 바뀌었다. 지금 와서는, 소통을 주로 회의나 텔레그램을 통해 하는데, 회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급변하는 해방촌 환경에서 해방촌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하는 고민도. 빈집 얘기할 때도 해방촌 이야기가 나왔지만 해방촌에 대한 설명을 먼저.
* l 해방촌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 기획 부동산들의 활동 / 연예인들의 건물 구매와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동네 슈퍼, 야채가게, 세탁소 등이 사라지고, 신층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이 아트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바뀌면서 동네 친구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난 상황. 우리가 해방촌에 계속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 l 그런 상황 속에서 빈집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도. 올 초 마을 카페를 정리하고 성공회 나눔의 집과 같이 이용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해방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주민과 연대하고 흐름에 맞서자는 취지로 왔다. 해방촌 사람들과도 일정한 접점을 기대하고 왔는데, 공간을 이용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들과 활동의 방식이 다른 문제들. 그 속에서도 해방촌 상황은 급변하고 있음이 문제. 외부적인 문제 요소들.
* l 내부적인 문제 요소는 구성원이 바뀌고, 이 문제의 근본에는 활동비가 없다는 것. 마을 사업을 따도 주로 사업비로 쓰이고.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참여해서 사정에 따라서 참여할 여력이 달라진다. 덧붙일 이야기 있으면 해달라.
* l 빈집 어디로 갈 것인가, 모두들 사회주택에 대해 생각해볼 때, 나눔의 집과 빈집이 같이 사회 주택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 l 처음에 나눔의 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런 걸 같이 할 걸 생각하고 온 게 있는데. 이게 큰 얘기다 보니 차차 얘기해보자 생각했었다. 개인적으로는 자꾸 임대료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체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듯. 그러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졌지만.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도 변질되어 표류하고 있고, 소수의 자문가들이 이상하게 판을 짠다. 나눔의 집과 모색한다면 하는 건데, 아직 신뢰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사업을 하면 결국 나중엔 빈집의 이름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질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나눔의 집과 같이 한다는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작게라도 사업하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방촌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 l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하고 나눔의 집에서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지만, 이 일정을 맞추기에는 서로 간 협업의 정도가 너무 낮다는 부분. 공간을 같이 이용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공간을 같이 쓰며 같이 뭔가를 할 마음이 많이 깎임.
* l 갈등이..?
* l 해방촌 사람들과 나눔의 집은 야망의 밀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해방촌 사람들의 매력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며 자급자족하는 과정들인데. 돈 되는 결과물이 아닌 데 꼬라박을 수 있는, 아무 생산성에 대한 생각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야망 있는 나눔의 집과 섞이기 어렵다는 생각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 l 우리는 느슨한 연대로 있는데 그 쪽은 신부님이 결정하면 결정됨. 종교 기반이기도 한 거고. 의사소통 체계 자체가 많이 다르다.
* l 작년에 경제적 자립을 한 번 시도는 했지만. 친환경 소재로 공예도 했는데. 처참하게 망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내부 순환이 가능하게끔.
* l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단 덜 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 l 더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 l ㅋㅋㅋㅋㅋㅋㅋ
* l 작은 생업 만들기.
* l 해방촌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내년?
* l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상황. 지금 하는 일도 올 해 한다는 정도로.
* l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방촌 사람들이 ㅇㅇ동 사람들이 되는 거는?
* l 망원동 사람들?
* l 망원동도 오른 지 오래 됐지.
* l 해방촌 사람들이 빈집과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빈집과 함께하는 거라서..
* l 모두들도 집 만들면서 어려운 것 많았다. 못 만들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고. 농담처럼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이 집이 왜 사라지게 되는지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 l 빈집이랑 해방촌 사람들은 진짜 해방촌에서 살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찍 소리라도 하고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거의 10년 살았는데.
* l 지금 해방촌에서는 옆집 사정도 속속들이 알고 관계들이 만들어져있는데, 절연하고 딴 데 가도.. 돈이 없어서 밀려나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무형의 관계들이 있는 건데.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필요를 가진 사람도 여전히 있어서 해방촌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건데. 어떻게 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생각이 많아진다. 갈려고 해도 생각이 많고 있으려 해도 생각이 많고. 그래서 나눔의 집이 썩 못 미덥더라도 작게라도 같이 해야하는 것인 것. 냄비 속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는 건데. 집이 없어지기는 쉬운데 새로 늘리기는 어려운 거라서 불안을 계속 안고 가야 함. 사는 게 불안하면 여기에 집중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사회주택이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주거 재생을 다루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결합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너무 달라서. 요구되는 것들도 많고.
* l 모두들에서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는 이런 거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길 많이 듣는데.
* l 분명 지원은 많아서 일정 단위를 꾸려서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빈집과 나눔의 집과 도시 연대. 그런 것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잡느냐 아니면 보내느냐 하는 부분.
* 1-6.건강계
* l 짧게 하겠다. 작년에 시작. 그 전에 질병 있어서 수술을 해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기존 보험을 들 수가 없었다. 건강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했었다. 나중 오프모임을 갔을 때 감동 내지 놀라웠던 건 상호부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플 때 돈을 받아야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상호부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감동. 작년 1기가 만들어져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 1년 후 다시 더 하자고 해서 2기가 되었음.
* l (표 설명)
* l 소모임과 운동 모임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꾸준하지 않았다. 가장 큰 부분은 건강계 강좌를 개최했음. 9월엔 질병의 사회학적 의미와 병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10월 22일 정신과 의사를 섭외해 정신 건강, 상담,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
* l 건강계 확장 가능성. 무조건적인 확장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인권 단체 활동가 복지 차원에서 빈고 건강계 가입을 권유해보자 / 건강계에 먼저 가입하고 추후 빈고 조합원에 가입하게 하자 등.
* l 홍보 활동은 필요하다. 관계망이 넓어지는 부분.
* l 보험료는?
* l 매 달 만 원. 올 해는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 l 지역은 상관 없나?
* l 빈고 조합원이기만 하면.
* l 최근 친구 중 보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추천해줘야겠다는 생각.
* l 저는 약간 반대로 건강계를 하면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ㅋㅋ 건강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몸이 진짜 안 좋았는데 계속 건강계에 신청을 하면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었다. 남들 앞에서 아픈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싫은데. 맨날 곰자 곰자로 올라가는 게 너무 싫어서 익명성이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자 해서 알아봤는데. 한 회사만 알아봤지만 거절당했다. 장애가 있는데. 장애 급수가 낮아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KB에서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서 다시 건강계로 돌아왔다 ㅋㅋㅋㅋ
* l 정신과 관련해서는 실손 보험이 안 된다. 올 해 건강계에 신청은 안 했지만 실손 보험에서도 올 3월부터는 정신과 보장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약관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회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건강계는!
* l 인권단체는 계원 확장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체 활동가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 l 작년에는 모인 곗돈에서 10%만 써서 90%가 남았다. 그래서 50% 더 얹어서 100% 지원했고. 남은 80% 중 50%는 환급, 그래서 딱히 손해날 일은 없는.
* l 중복보장 되나요?
* l 원래 실손보험끼리는 안 되지만 건강계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 작년은 이렇다 할 지출이 없어서 돈은 아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올해는 두 명이 천 만 원짜리 수술을 했는데 원래 보험이 있었던 사람. 국가 보험에서 60% 지원. 그래서 300 중 실손보험에서 60% 200 지원.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었는데 건강계에서 70이 나가고. 실제 자기부담금은 30. 물론 건강계 지원은 70이고. 그래서 국가 보험을 제대로 하는 건 중요한 일.
* l 활동가들 활동비 만 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l 상한은 있다. 지금은 한 번 지출이 100만원까진데, 사람이 늘어나면 더 커짐. 그만한 일이 많진 않을 거고.
* l 치아가 많이 들어요. 1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 1-7.<빈땅>
* l 빈땅은 땅을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재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
* l 일정. 10월 15일 이사를 감. 전셋집을 마련한 주 이유는 홍성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매달 한 번씩 홍성에서 마주보며 대화하기로.
* l 12월 중으로는 발기인 준비. 4월 8일 창립총회 개최 예정.
* l 다른 공동체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 1,2층 42평이고 마당도 참 넓고 교통도 좋다. 터미널/홍성역과 걸어서 10분 거리. 다른 공동체나 단체의 모임, 농사, 캠핑, 건축, 운동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음.
* l 공동체주택을 만들 것. 2년 후.
* l 지금 홍성은 그 값에 땅을 못 구한다.
* l 그럼 빈땅 협동조합은 공동체주택 건축까지?
* l 제가 생각하는 빈땅 협동조합은 기부금을 모으고 땅을 관리하는. 건축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야할 것 같다.
* l 홍동 마을로 가는 것?
* l 홍동면 금평리인데, 홍동 마을 중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 l 최근 캠프에서 홍동 사람들을 만났고 자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있기도 하고, 유토피아처럼 묘사하기도 하던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네를 골랐는지..
* l 원자력발전소 피해반경을 피해서 ㅋㅋㅋ
* l 청주도 피해져서. 청주 땅도 많이 알아봤음.
* l 원주 충주 청주 홍성 공주 다 안전지대. 경기도 안쪽으로는 땅값 비싸니까 그 다음 라인을 보는 중에. 홍동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받음.
* l 평당 10만원짜리 땅을 구하는 게 힘들었다 진짜.
* l 홍성 가서 집을 지을 계획도 하게 된 게, 이전에 홍동에 갔을 때 도시에서 벗어나 산다 생각했을 때 젊은 층도 있고 공동체가 갖춰져 있어 덜 폐쇄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결정.
* l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이 유토피아처럼 설명했다는 데 놀랐음. 그 안은 완전 아수라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내려가 있고 오래된 역사의 마을만들기가 있어서 어떤 동네보다 갈등이 많고. 그래서 땅을 사는 과정에 고민을 많이 했다. 여기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 l 토박이들의 신협, 귀촌자들의 도토리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갈등이 있고, 마을의 주점에 감시하듯 왔다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 l 서로 예의주시하는 게 있긴 있는 듯.
* 농촌 단위에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처음인 것 같긴 함. `1

**3.운영안건**

* 1.소통방식
	+ l 조합원 소통의 유일한 창구가 뉴스레터인데, 그럼 차라리 텔레그램방을 확 늘려서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참가할 수 있게. 의결은 지금처럼 하거나 전체투표를 무조건 걸거나. 몇 사람이 투표하든 간에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
	+ l 대상을 기존 공동체활동가+상임활동가+운영활동가+감사. 지금 빈고의 소식을 바로 접하는 통로는 텔레그램방밖에 없고, 이런 소식을 이런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고액 출자활동가/고액 이용활동가 기타 연대 활동가 등. 그 밖에 운영에 관심 있는 조합원. 소식 계속 주고받고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 l 텔방을 키우고 의결은 별도로 하든지 / 모든 사람에게 의결권을
	+ l 아이디어. 몇백 명 텔레그램방은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니까. 매 달 제비뽑기처럼 무작위로 30명을 랜덤으로 초대해서 의결권을.
	+ l 건강계에서 해보니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훅 들어오는 것 같다
	+ l 뉴스레터는 전체 조합원에게 가는 거니 무조건 해야한다 봄
	+ l 이런 경우 문제는 운영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텔레그램을 안 쓰는 것이긴 한데.
	+ l 텔레그램방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구조인듯.
	+ l 다른 앱이 있긴 한데 다 가입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 l 메신저처럼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건을 올리면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앱이 있음. 트렐로?
	+ l 넘 힘들다 ㅋㅋ
	+ l 결국 방법은 꾸준히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최고인데. 기술적 도움은 기술적인 도움에서 끝나는 듯…
	+ l 텔레그램은 텍스트가 저장이 안 되는 게 아쉽다
	+ l 얘네가 잘 하고 있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면.
	+ l 공지방을 만들고 의결이 필요한 글의 링크를 걸기. 신변잡기 금지. 논의 금지.
	+ l 제안한 사람들 선은 50명 정도.
	+ l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초대한다**
	+ l **=>당장은 그 방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권 있는 사람을 명시하는 식으로**
	+ l **=>승인**
* 2.화폐 단위 변경
	+ l 원과는 다르다는 느낌. 실용적으로는 우리집 보증금이 이천만 원인데 천만 원과 천만 빈이다.는 식으로.
	+ l 빈고의 이름도 금고가 아니고 빈이 들어있는 금고인 빈고.
	+ l 내년 총회까지 한 번 해보고 재미있으면 계속 하고 재미 없으면…
	+ l 그러다가 혹시 어쩌다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 l =>오늘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 시범적으로 원을 빈으로 바꿔 운영한다.
	+ l **=>과반이 안 되어 부결**
	+ l 찬성 안한 이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 l 총회를 거쳐 모두에게 인지된 이후에 이뤄졌으면
	+ l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 l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다 / 의도를 잘 모르겠다
	+ l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 하기 나름. 구지 안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 ㅋㅋ
	+ l 의미를 꼭 부여하지 않더라도 놀이의 성격으로
	+ l 별로 재미 없는 사람도 있는 듯?
* **3.이용분담금 개편안**
	+ l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나? - 안 해봄…
	+ l 전체적인 출자금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빈고의 실제 이용 수입은 4.8%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하지 않나
	+ l 개인 조합원은 왜 안되나 하는 생각도. 이용분담금을 내는 건 똑같은데.
	+ l 개인 출자금에 대한 지지는 출자지지금으로 다 간다.
	+ l 공동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하는 기금들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도의 혜택을 주는 건?
	+ l 돌려주는 것을 공동체 출자로 돌려주는 거니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 l 공동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공동체 밖에 있는 개인 출자자라든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 선량한 개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 그렇다고 해서 빈고 재정 건전성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궁리하게 된 것.
	+ l 그 부분은 진짜 동의.
	+ l 출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된 셈.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2년이 지났는데 또 빈고에 천만 원을 이용해서 똑같이 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하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방안.
	+ l 어느쪽이 좋을지는 하기 나름일 듯. 공동체 자체가 목표를 가져가서 2년 후에는 좀더 저축을 해보자는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건 좋은 일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한 패널티 대신 인센티브를.
	+ l 반액은 아니라도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l 비율은 고민해보는 게 좋을 듯. 최소치를 잡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출자금 내 이용처럼.
	+ l 되게 좋은 것 같다. 모두들에서도 이번에 빈고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자본을 쌓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출자금을 내는 게 공동체 차원에서 기획하는 게 상상이 안 됐었는데 저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자본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 l 한 달 한 달 만 원 이만 원씩 더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공동체의 유지와 확장은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다. 한 달에 일이 만원 씩이라도 더 걷어서 하다보면 훨씬 도움이 되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 l 상임활동가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 l 출자 지지도 좋은데 각 공간이 빈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이용 신청서를 쓴 사람은 주지가 확실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도 상관 없다는 느낌이고, 새로이 들어오면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빈고라는 네트웤에 속해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 l 분담금이 25만 원이면 2만 원의 출자금을 더한다는 식으로,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잡고, 각자의 목표를 잡고 하는 식으로. 정해서 돈 낼 때 같이 낸다거나.
	+ l 선물을 퍼센티지가 아니라 정액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취지는 괜찮으니 일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운영회의를 거친 뒤 총회나 다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자.**
* 4.이용안건
	+ **홈보야지 이용 신청**
	+ l 공간 활용에 있어서 13평 방 세 개인데, 최종적으로 작업 공간이 활용된다고 봤을 때.
	+ l 공동체 공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 l 활동 계획이 두 명이 하는 것 치곤 되게 많다.
	+ **홍성 새집**
	+ l 이용 승인 받은 금액 3000 => 5000으로
	+ **잘자리**
	+ l 2000/50 집 생각 중
	+ l 그동안 잘자리에서 약간의 위기를 넘기고 근 3년 정도 되었다. 안정기. 그러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지만 사는 사람이 고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못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 집을 만들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 쉐프가 그런 마음을 먹고 다른 친구를 설득해서 2명+1명을 구해 집을 구하려 함. 생각보다 빠르게 괜찮은 집을 알게 돼서 모든 조건은 괜찮지만 기름보일러+LPG라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지만. 잘자리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1.5배. 공간도 더 크고.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미있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 l 잘자리하고 가까워요?
	+ l 지하철 한 코스.
	+ l 잘자리 1호가 10월 20일 계약 만료로, 이 날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함.
	+ l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계약자를 바꿀 경우 월세를 올리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2호 계약자로.
	+ l 이용신청서가 없지만 가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 계약은 급하니까.
	+
	+ l 그럼 세 건이 모두 승인된다면 3,450만 원 정도가 가용 금액으로 남는다.
	+
	+ l **=>홈보야지 이용 과반 찬성으로 승인**
	+ l **=>홍성새집 이용금 수정 과반 찬성으로 승인**
	+ l **=>잘자리 2호점 이용 과반 찬성으로 가승인**
	+ l 그럼 천 만원 정도의 여유 자금은 더 있다.